

IMF 체제하에서의 축산업

1. 서론

한국경제가 IMF 체제하에 커다란 변화와 고통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과거의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물가폭등과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IMF와 협의된 향후 5년간의 경제 프로그램과 경제전망 지표는 <표 1>과 같다.

IMF 체제하에서의 경제 전망 지표를 보면 97년 GDP 성장률이 6%인데 비하여 98년의 GDP 성장률은 3.0%로 절반이 줄어든다. 또한 98년의 실업률은 3.9%로 97년보다 1.4% 높아진다. 99년의 GDP 성장률이 5.6%로 다시 높아지기는 하지만 98년은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

와 함께 약 100만 명이 넘는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고통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원화의 폭락으로 인한 환율의 변화는 국내산업을 거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자, 무역회사가 원재료를 수입 하면서 대부분 공급자 부담의 유전스(외상구매)를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40일까지 연장하여 외환을 사용하고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로 결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계속적인 유전스를 이용한 수입이 공급자로부터 거부되고 현금결제가 요구되면서 환율 상승과 함께 사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다가오는 유전스 결제 기한인 98년 1월 2월, 3월은 국내 대부분의 수입업체와 수입원재료를 이용하는 사료회사를 포함하는 제

<표 1> IMF 경제 프로그램 아래에서의 경제전망 지표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GDP 성장률	6.0	3.0	5.6	6.0	6.3	6.5
실업률	2.5	3.9	3.8	3.5	3.2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4.3	5.0	4.6	4.1	3.7	3.3
경상수지(GDP 비율)	△135 (△3.0)	△43 (△1.0)	△21 (△0.5)	22 (△0.4)	36 (0.6)	45 (0.7)
무역수지	△47	39	57	98	108	110
무역외-이전수지	△88	△82	△78	△76	△72	△65

* △는 마이너스를 의미함

(자료 : 조선일보 97. 12. 5)

어서 서울도매 육류시장에 출하되는 비육우 두수가 도축규모보다 약 2배가 되어 2박 3일 계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돼지, 소 모두 도축규모가 현재의 출하두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제한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IMF 체제가 축산업 수요와 공급 요인에 미치는 영향

IMF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환율의 원화가치 폭락,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의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결국 축산물

〈표 2〉 74년 오일 쇼크 전후의 양돈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비교

연 도	사육호수 (천호)	사육두수 (천두)	호당사육두수 (두)
1974	890(100)	1,818(100)	2.04
1975	654(73.5)	1,247(68.5)	1.91
1976	910(102)	1,953(107)	2.15

생산비를 크게 상승시키고 반면에 축산물 소비를 줄이게 된다. 각 요인을 발생 순서대로 열거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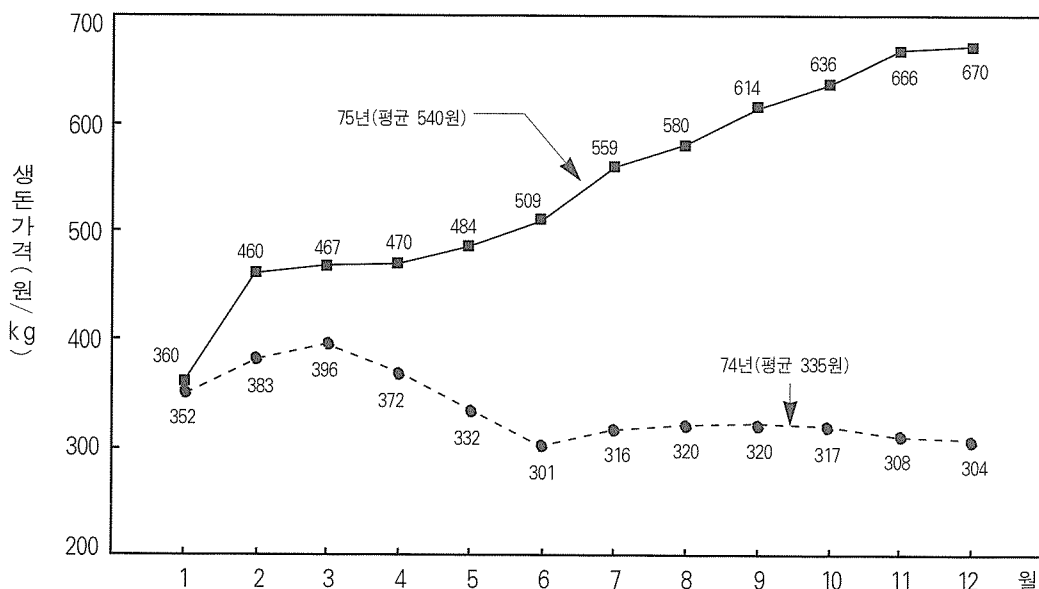
즉, 생산비의 증가는 농장의 적자경영으로 축산포기 농가가 속출하고 산업기반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면서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은 적정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사태를 초래하여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축산물 증가를 유도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양돈산업은 공급측면에 제5단계인 조기출하, 생산기반 위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74년 오일 쇼크 당시의 양돈사육두수와 가격 변동 사례 조사

이번의 IMF 사태는 과거에 없었던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경험을 회고하면 지난 74년의 오일 쇼크 사태와 유사하다. 지

〈그림 2〉 74년 오일 쇼크 전후의 월별 생돈가격 변화 비교



난 74년의 오일 쇼크는 이번 IMF 사태 이후의 사태 전망에 참조될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한다.

옥수수 가격도 3배로 폭등하고 사료가격도 같이 상승하였던 것이다. 당시 오일 쇼크는 축산업 계도 강타하여 양돈산업의 경우 1년만에 사육두수가 31.5%, 사육농가호수는 26.5% 감소하였다. 반면에 돈가는 그 다음해 폭등하여 생돈의 평균단가가 74년의 kg당 335원에서 75년은 540원으로 전년대비 61%나 상승하였다(〈그림 2〉 참조).

3. IMF 체제하에서의 양돈산업 생산비와 예상가격 변화

IMF 체제하에서 현재 40% 인상된 사료비(환율 1달러당 1,350원)를 기준으로 양돈의 생산비 상승요인과 상승폭을 추정하고 향후 돈가 변화를 예상하여 본다.

1. 양돈의 생산비 상승추정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일 때의 비육돈 생산비는 전업농가의 경우 생체 kg당 1,350원(100kg 1두당 15만원) 수준이다. 생산비 중 사료비는 상기 원가 중 각각 66%, 60%를 차지하여 kg당 900원(1두당 9만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사료비가 40% 인상이 된다면 다른 동물약품이나 수도광열비 등 기타 비용도 약 1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총 비육돈 생산비를 30~32% 상승시키게 된다(〈표 3〉 참조).

상승된 총생산비는 서울도매시장의 지육률 68% 기준으로 현지거래 시세로 따지면 전업농의 비육돈 생산비는 지육 kg 당 2,620원, 기업농장의 생산비는 지육 kg당 2,87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울 3개 도매시장 97년 평균 지육 kg당 가격이 2,460원임을 감안할 때 IMF 체제하에서 생산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두당 1만원의 이익을 본다고 가정한다면 전업농의 경우 지육단가는 연중 평균 최소한 kg당 2,770원, 기업농장의 경우에는 kg당 3,020원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97년 평균가격보다 최소한 kg 당 300~500원 정도 높아야 양돈산업은 적자경영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98년 6월까지의 출하돈은 생산비가 IMF 체제하의 원가상승 요인을 덜 받게 되므로 98년의 돈가는 97년 가격보다 지육 kg당 200~300원 상승하여도 흑자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돈육 수요변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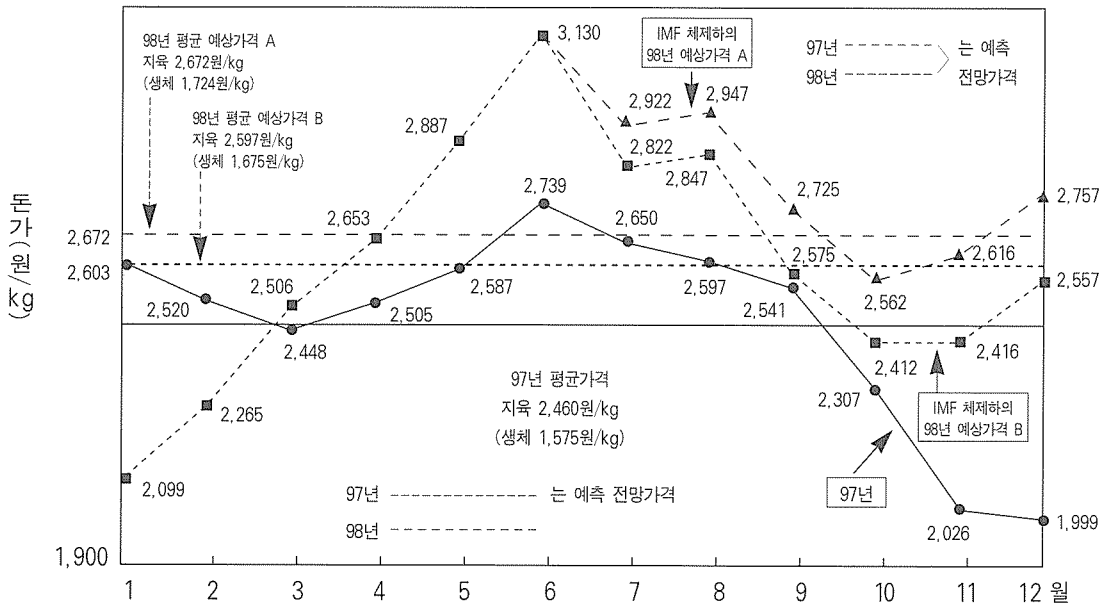
〈표 3〉 환율변화와 사료비 상승에 따른 추정 비육돈 생산비 변화

(단위 : 원/kg)

환율	항목	전업농가		기업농장	
		원가	비율	원가	비율
1달러 900원	총생산비	1,350	100	1,500	100
	사료비	900	100	900	100
	기타비용	450	100	600	100
1달러 1,350원	총생산비	1,780	132	1,950	130
	사료비	1,260	140	1,260	140
	기타비용	520	115	690	115

※ 생산비 우측 비교지수는 각 항목별로 환율인상 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임.

〈그림 3〉 97년 돈가 및 98년 돈가전망



본 연구소의 돼지고기 소비의 소매가격 변화에 대한 탄성치에 대한 지난 12년간의 분석결과 국민소득이 10% 상승하면 돈육소비는 6%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70년대의 10.7%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국민소득 증감에 따라서 돈육소비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돈육은 쇠고기 가격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차탄성치가 높다. 즉, 쇠고기 값이 10% 낮아지면 돈육소비는 3.3% 낮아지고 있다. 98년도의 추정 GDP 증가율은 2.5~3.0%이지만 실질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15%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실질국민소득은 -10~0%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98년도 양돈 돈가의 추정

98년도 돈가는 1~2월까지의 조기출하, 양돈 포기 농가의 모돈 출하 등으로 저돈가를 보이다가 3월부터는 공급의 부족과 수요의 발생이 본격적인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추정된다. 4월부터

는 생산비 상승요인도 함께 작용하여 돈육 성수기인 6~8월까지의 평균 돈가보다 kg당 200~400원이 높은 돈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돈가 현상은 돈육 수요가 지난 10여년간 자연 증가율인 4.7%를 유지 못하고 돼지고기 소비증가가 -5%~0% 감소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요인이 너무 높아서 공급이 부족한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소매가격이 워낙 높아서 최소한 4월까지의 인상 없이 정육점 운영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소매가격도 다른 물가 상승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말부터 9월 추석, 10월까지의 추석기간과 함께 연중 쇠고기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로서 돼지고기 수요가 급격히 낮아져 가격의 하락폭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 최저 돈가 시점은 예년의 11월이 아닌 10월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97년 12월부터의 모돈 처분 영향이 비육돈 출하두수로 나타나는 것이 98년 1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98년의 평균 지육가격(서울 3개 도매시

장 기준)은 환율이 1,350원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연평균 kg당 2,600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초에 최저 단가를 보이다가 6월에 예년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나타내고 급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98년 단가 예상 B). 한편으로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 단가의 1,350원 때보다 다시 지육 kg당 100~200원 높은 가격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98년 단가예상 A). 생산성 상위 30% 이내 농가는 98년 비육돈 1두당 약 1만원 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며 예년보다는 단가의 진폭이 훨씬 큰 변동을 보이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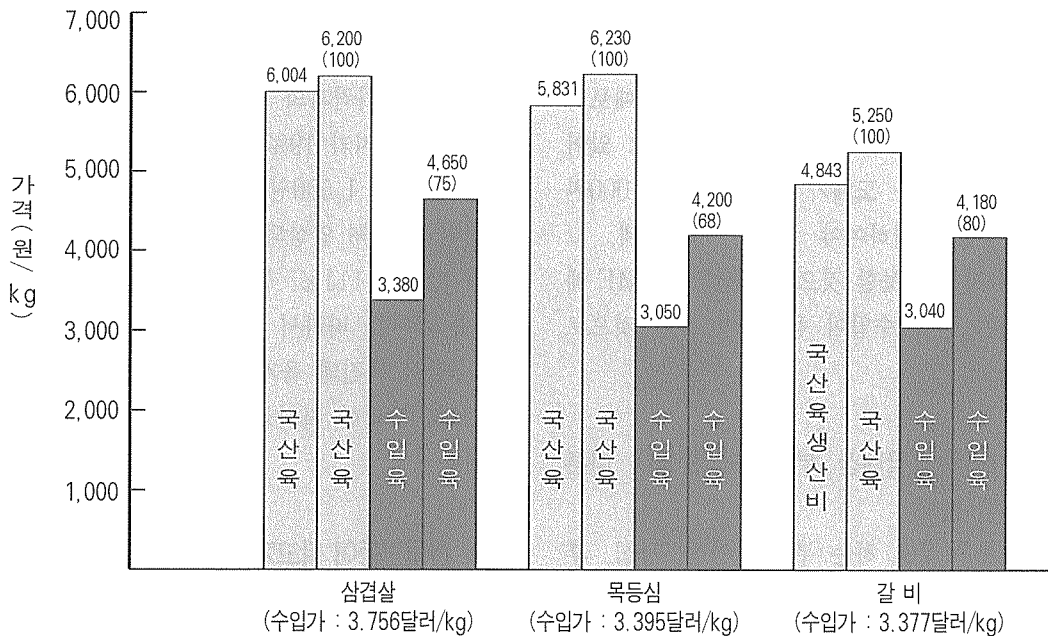
4. 98년도 IMF 체제하에서의 돈육 수입 및 수출가격 추정

가. 환율변화에 따른 수입돈육 가격과 국산돈육 가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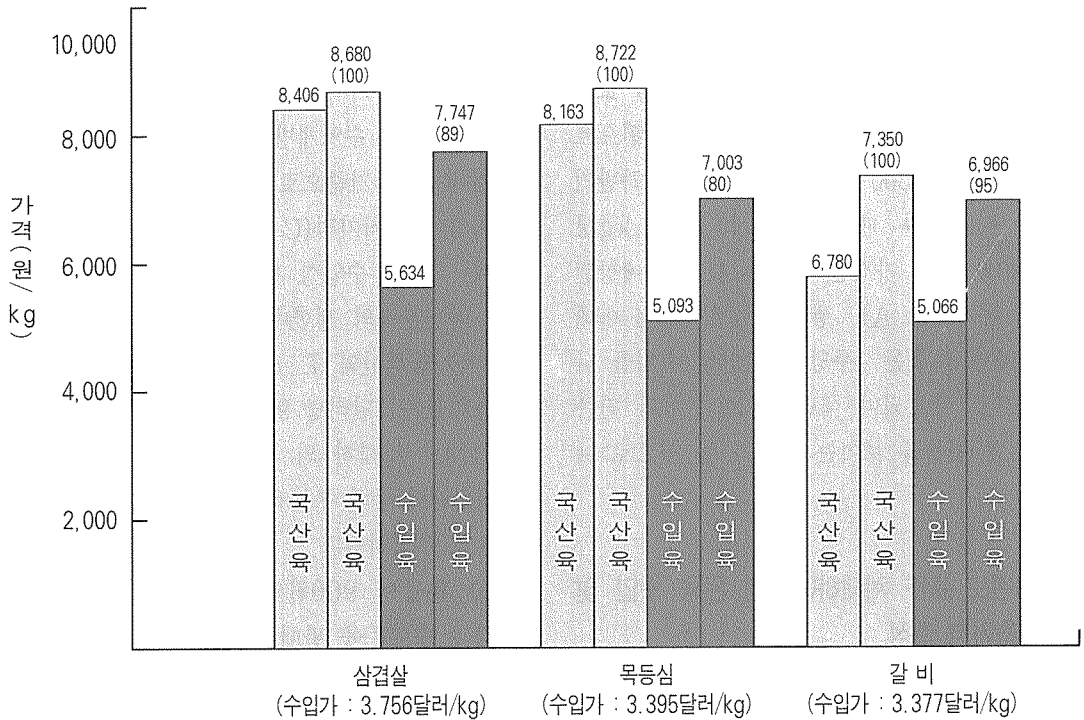
수입돈육의 수입가격과 국내 육가공업체의 생산비를 주로 수입되는 부위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국산돈육의 생산비와 수입돈육의 도착가격 및 판매 가능가격을 비교하여 보았다. 수입가격은 지난 7월 수입개방 이후 7, 8월중에 수입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입돈육의 도매가격은 도착가격(C & F)의 1.375배로 수입관세, 경비, 수입상 적정마진이 포함된 가격이다. 국산돈육의 생산비와 적정 판매가격은 대규모 육가공회사의 7, 8월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환율비교는 1달러당 900원(IMF 이전)과 1,500원(IMF 체제하)의 경우를 비교하였고 환율 1,500원시 국내 부분육 생산비는 4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 환율이 900원인 경우 : 국산돈육 도매가격과 수입돈육 판매가능 도매가격과의 차이는 삼겹살이 25%, 목등심이 32%, 갈비가 20%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도매가격이 대규모 공장보다 낮은 중소규모 육가공장의 대량거래 삼겹

(그림 4) 환율 달러당 900 기준시 수입돈육과 국산돈육의 도매가격 비교



〈그림 5〉 환율 달러당 1,500기준시 수입돈육과 국산돈육의 도매가격 비교



살과 수입삼겹살과의 가격차이는 항상 1,000~1,500원의 간격을 유지하여 왔었다.

2) 환율이 1,500원인 경우 : 국산돈육과 수입돈육의 도매가격 차이는 삼겹살이 11%, 목등심이 20%, 갈비가 5%로 환율 900원 때보다 그 차이가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서 삼겹살의 경우 도매가격이 최소한 1,000원 차이 이상을 유지하여야 수입이 가능한데,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IMF 체제하에서는 돈육 수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수출하는 국내산 부분육의 환율에 따른 가격 변화

대일수출을 주로 하는 부위인 안심, 등심, 후지의 환율에 따른 국내 시판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였다. 국내판매단가와 수출단가는 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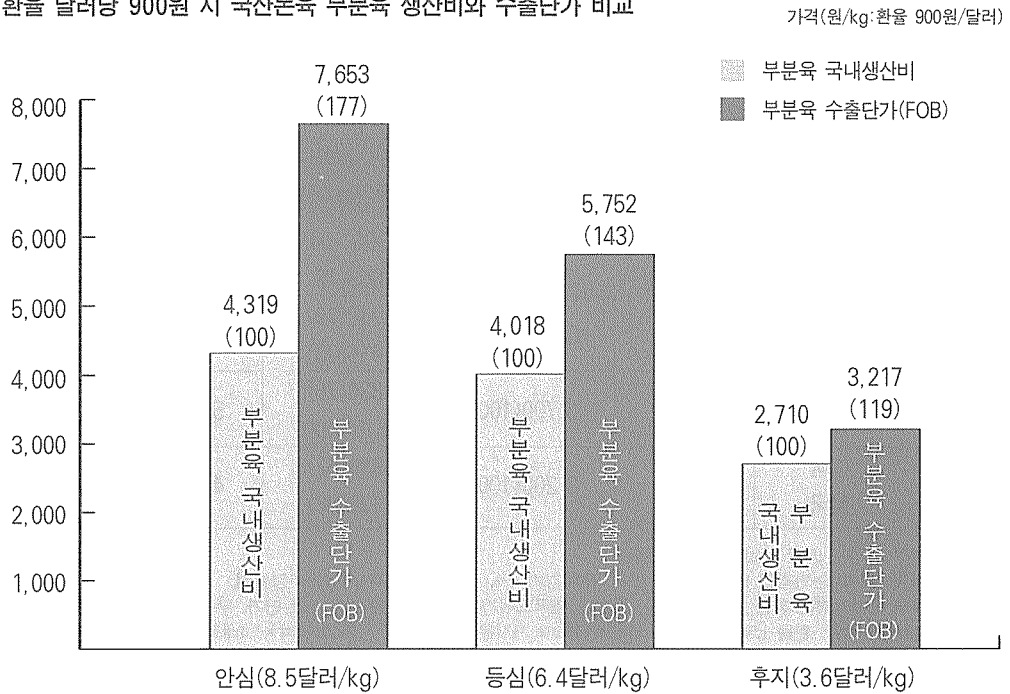
7, 8월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출가격은 엔화로 결제하지만 편의상 미화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그림 6, 7〉 참조).

달러당 환율이 900원인 경우 국내 시판 도매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는 안심이 77%, 등심이 43%, 후지가 19%로 수출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인 경우 국내산 돈육가공생산비가 4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안심이 111%, 등심이 70%, 후지가 41% 더 유리하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돈육 수출이 촉진돼 육가공업체나 양돈생산농가에 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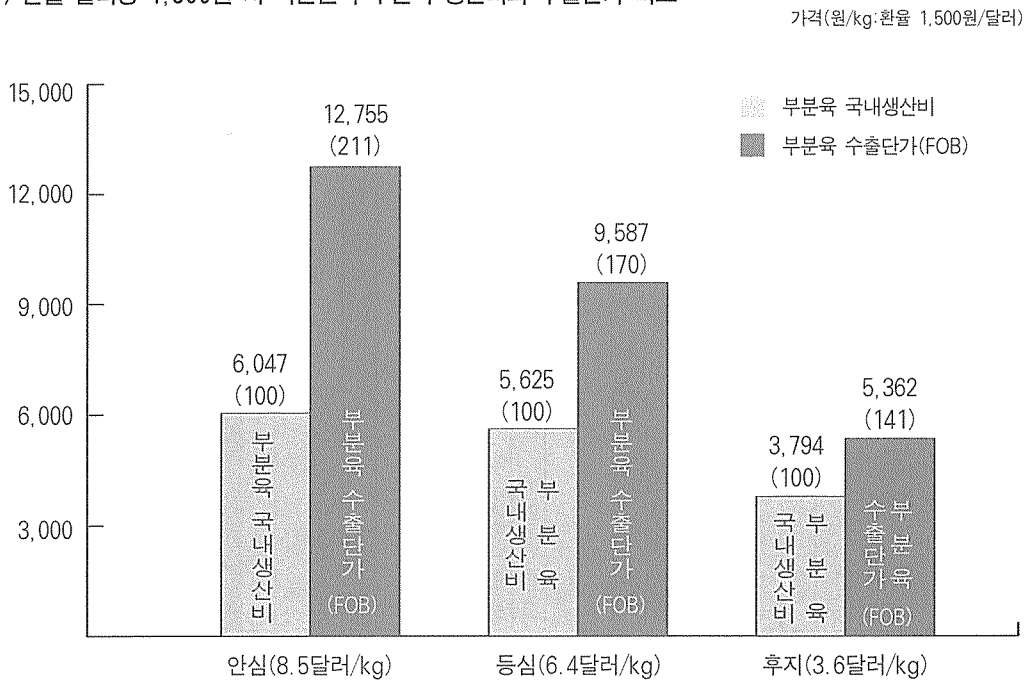
5. 환율변동이 닭고기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닭고기 역시 환율에 따라서 국내에서 시판

〈그림 6〉 환율 달러당 900원 시 국산돈육 부분육 생산비와 수출단가 비교



〈그림 7〉 환율 달러당 1,500원 시 국산돈육 부분육 생산비와 수출단가 비교



될 수 있는 도매가격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환율에 따른 수입가격과 도매가능가격을 추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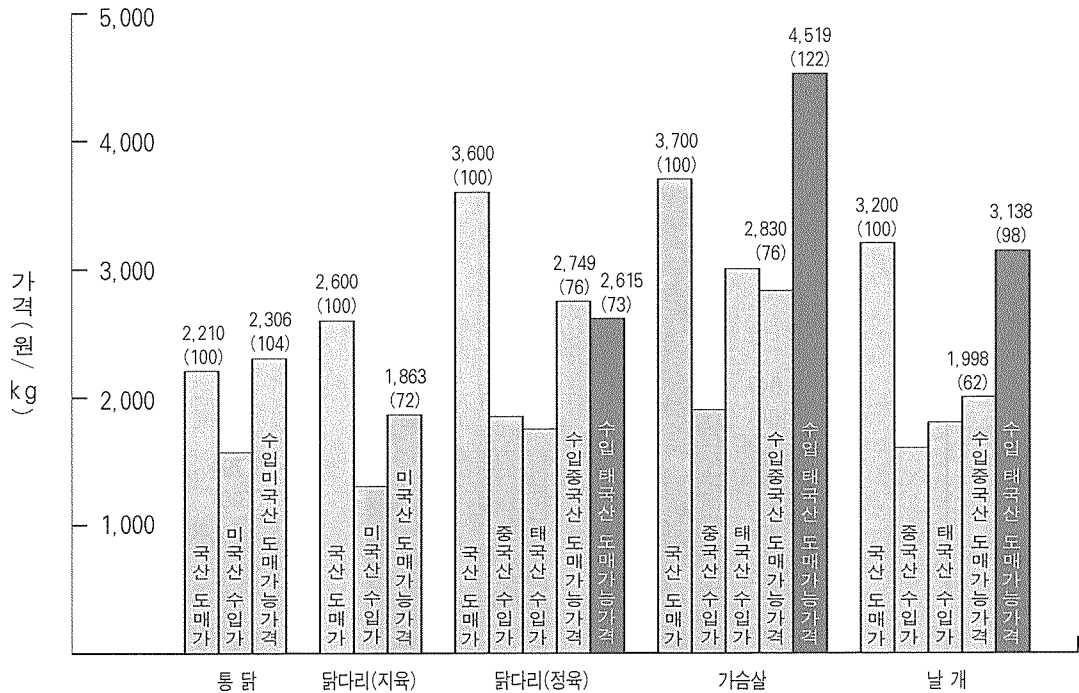
였다. 97년 상반기에 수입통관 실적의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수입관세는 U.R 합

〈표 4〉 환율변화에 따른 수입닭고기의 국내판매 가능가격 비교

닭부위	수입국선	수입가격 (CIF : 달러/kg)	환율에 따른 도매가능 가격 비교			
			900원/달러		1,500원/달러	
			국산계육 도매가격	수입계육 도매가능가격	국산계육 예상도매가격	수입계육 도매가능가격
통 닭	미국	1.72	2,210(100)	2,306(104)	3,094(100)	3,844(124)
다 리	지육	미국	2,600(100)	1,863(72)	3,640(100)	3,107(85)
	정육	중국	2.05	3,600(100)	2,749(76)	5,040(100)
태국		1.95		2,615(73)		4,358(86)
가 슴	중국	2.11	3,700(100)	2,830(76)	5,180(100)	4,716(91)
	태국	3.37		4,519(122)		7,532(145)
날 개	미국	1.49	3,200(100)	1,998(62)	4,480(100)	3,330(74)
	태국	2.34		3,138(98)		5,230(117)

주) 1. 수입가격(CIF)은 97년 상반기 수입통관실적
 2. 수입계육 도매가능가격은 98년 관세율 29%, 부대경비 5%, 수입자마진10% 감안 추정가격
 3. 국산계육 도매가격은 환율 900원의 경우, 통닭은 전국도매가격의 97년 1월~6월평균 단가, 부분육은 97년 계열주체사의 실거래가
 격을 기준으로 함, 환율 1,500원의 경우 국산계육도매 가격은 환율 900원 시기의 가격×1.4배로 원가가 40% 상승한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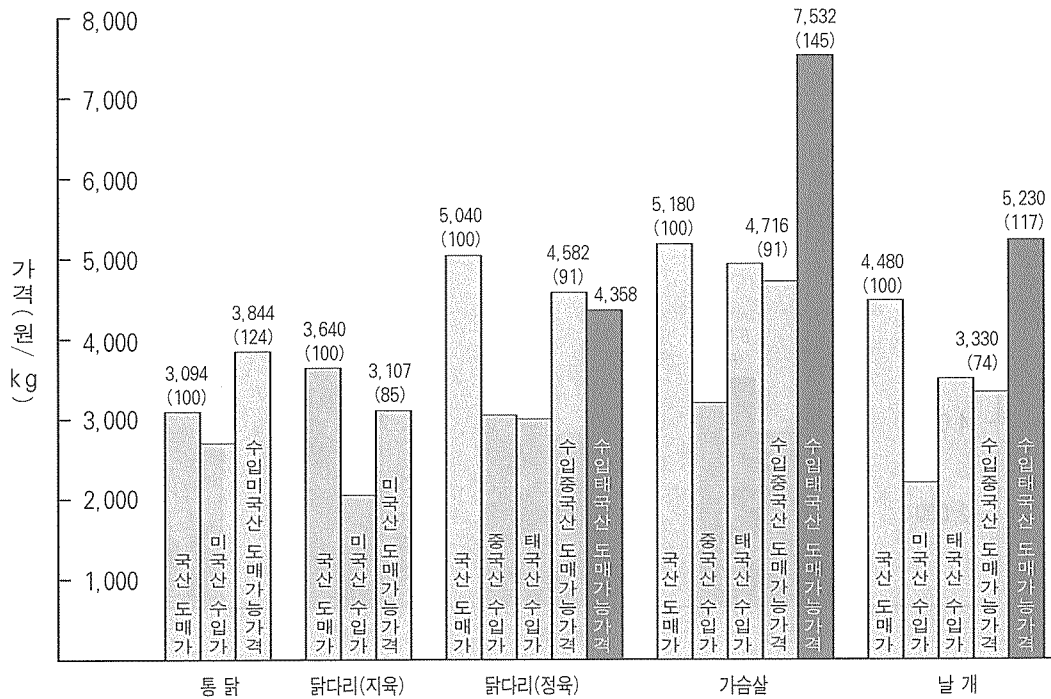
〈그림 8〉 환율 달러당 900원 기준시 수입계육과 국산계육의 도매가격 비교



의에 따른 98년 관세율인 29%를 적용하였고 부
 대경비는 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가격의 5%, 수

입자 적정이윤은 10%로 간주하였다.
 수입닭고기에 대한 국산닭고기와의 도매가격

〈그림 9〉 환율 달러당 1,500원 기준시 수입계육과 국산계육의 도매가격 비교



을 비교하면 통닭은 환율변화에 관계없이 수입 닭고기는 가격상 전혀 경쟁력이 없으며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이 되면 오히려 국산통닭보다 24% 가격이 더 높았다.

그러나 닭다리는 환율이 900원일 경우 수입계육은 미국산, 중국산, 태국산 모두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환율이 1,500원일 경우 미국산과 태국산이 간신히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가슴살의 경우 환율이 900원일 경우 중국산이 가격경쟁력이 있

으나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수입산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IMF 체제하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수입계육의 수입물량은 반대로 수입이 불가능한 정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쇠고리의 국내 판매 가능 가격 변화

〈표 5〉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산 쇠고리와 수입쇠고리의 판매가능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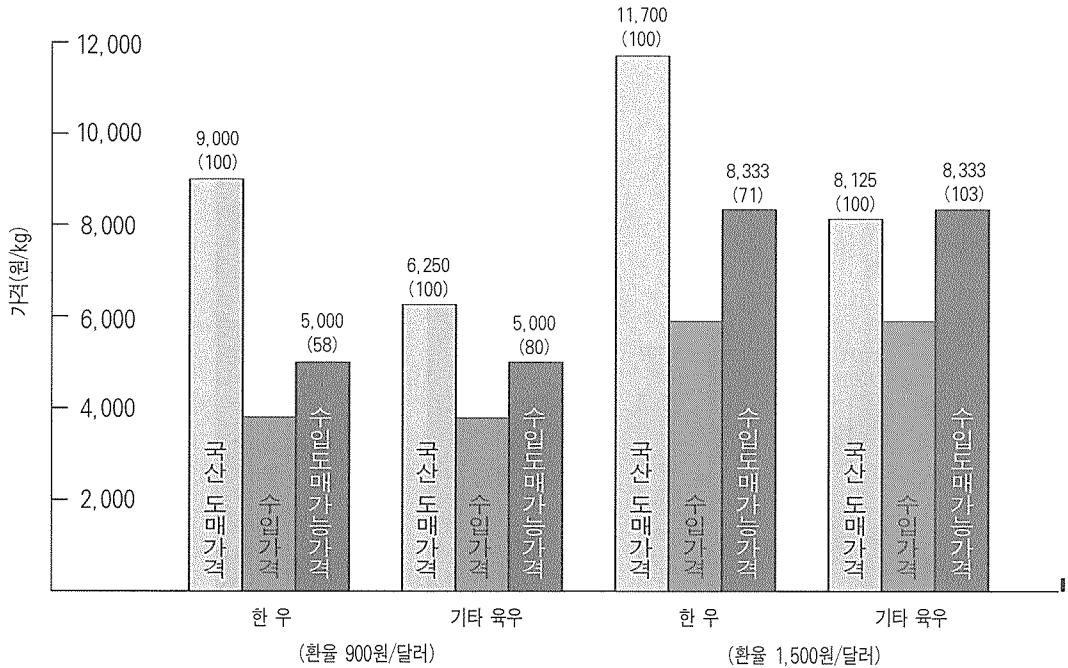
수입가격 (CIF : 달러/kg)	900원/달러			1,500원/달러		
		국내산 도매가격	수입쇠고리 도매 가능가격		국내쇠고리 예상 도매가격	수입쇠고리 도매 가능가격
3.85	한우	9,000(100)	5,000(56)	한우	11,700(100)	8,333(71)
	기타	6,250(100)	5,000(80)	기타	8,125(100)	8,333(103)

주) 1. 수입가격(CIF)은 97년 7월 미국산 수입통관실적

2. 수입 도매 가능가격은 수입가격에 관세율, 부대경비, 수입자마진을 합해 44.3% 감안하여 추정한 가격

3. 국산쇠고리 도매가격은 환율 900원의 경우 시장조사가격, 환율 1,500원의 경우 국산쇠고리 도매가격은 한우는 환율 900원 시기의 가격×1.3배로 원가가 30% 상승하고 기타 육우는 환율 900원 시기의 가격×1.3배로 원가가 30% 상승한 것으로 추정함.

〈그림 8〉 환율 달러당 900기준시 수입계육과 국산계육의 도매가격 비교



수입쇠꼬리 역시 IMF 체제하에서 환율변동에 따라 수입가격과 국내도매 판매 가능가격이 달라지고 환율이 오를수록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97년 7월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 가능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수입 쇠꼬리와 국내산 쇠꼬리를 한우와 기타 육우로 나누어 가격을 비교하면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었을 경우 수입 쇠꼬리가 국내산 한우보다 44%, 기타 육우보다는 20%씩 더 낮아 수입 쇠꼬리가 가격이 낮았다. 그러나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일 경우에는 수입 쇠꼬리가 국내산 기타 육우의 쇠꼬리보다 오히려 3% 더 높은 가격이 되어 가격 경쟁력을 전연 갖지 못하고, 한우 쇠꼬리보다도 도매가능가격이 29% 낮기는 하지만 환율이 900원일 때보다 그 차이가 더 줄어들었으며, 국민들의 수입육이나 기타 육우에 비해 한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감안하다면 29%의 가격 차이는 수입업자의 의욕과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일 수 없는 가격일 수밖에 없다.

7. 결론

IMF 체제하에서 부채가 많은 농가, 생산성이 낮은 농가, 규모가 작은 농가 등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가 산업에서 퇴장하면서 일시적인 대량의 가축 방매 또는 투매현상이 1~2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처음 1~2개월간 가축의 가격은 폭락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돈육 수요는 현재의 국민소득 수준에 육류는 소득이 감소한 것보다는 수요가 덜 감소함으로써 공급부족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축산물가격은 주로 공급부족의 원인으로 3월경부터 급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췌 : 축산물 수입개방시 예상 수입물량과 국내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정 P & C 연구소 발행)